

큰스님 수행한담

제대로 실천하는 일



1973년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서 좌담회를 마치고 수도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가운데 가사를 수한 스님이 법인스님, 앞쪽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스님의 제자인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호진스님

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학문적 탐구를 계속하다보면 입시생들은 입시생 나름대로의 목표를 도달할 수 있게 되고,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불의 길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게 됩니다.

는 자력(自力)의 종교입니다. 마음이 부처라 하였고 일체만유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청정하고 바르게 잡고 닦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생들에게는 눈(眼), 귀(耳), 코(鼻), 혀(舌), 몸(身), 생각(意)이라고 하는 6근(감각기관)이 있어 온갖 번뇌망상과 시비가 생겨나고 공연한 분별심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끌려다니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한치도 향상될 수 없습니다.

불교는 有神의 종교 아닌 본래 청정한 자성 깨달아 최고의 지혜를 증득하는 종교

고 있습니다. 즉 율장(律藏)은 계학(戒學)이며 경장(經藏)은 정학(定學)이며 논장(論藏)은 혜학(慧學)에 대비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경·율·론 삼장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하여 계·정·혜 삼학을 실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력난사의(法力難思議)하고 대비무장애(大悲無障礙)로 다 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법력난사의’라는 말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는 참으로 깊고 넓고 높아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서서는 헤아릴 수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합시다 하면 합천 해인사에 모셔진 팔만대장

우리 불자들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실천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불자로서 지키고 행하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중생의 온갖 고통이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를 밝히고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로 인해 이고득락(離苦得樂)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알기는 많이 하는데 근본 목적인 ‘행복한 삶’의 성취는 못하고 있습니다. 목이 말라 강가에까지 왔는데 어리석게도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유경’의 ‘어리석은 비둘기 남편’의 이야기로 내 얘기를 끝낼까 합니다. 비둘기 부부가 정답게 살고 있었습니 다. 가을이 되어 익은 과일을 몰려다가 동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과일이 마르면 동지에 가득 찼던 과일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리석은 수비둘기는 암비둘기가 자기 몰래 혼자 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수비둘기는 통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과일을 혼자서 먹었어?” “과일을 혼자서 먹다니 그런 터무니 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과일 맛도 보지 않았는데.” “이것 보라고, 과일이 반밖에 없잖아.”

과일을 보니 정말 반밖에 없었습니다. 암비둘기는 절대 자신이 먹지 않았다고 소리쳤지만 화가 난 수비둘기는 암비둘기를 쫓아 죽였습니다. 얼마 후 많은 비가 내려 동지까지 비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러자 반으로 줄었던 과일이 수분을 함유해 다시 동지에 가득 찼습니다. 이를 본 수비둘기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뒤우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번 이 세상을 떠난 암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탐진치가 우려나는 대로 살다가 세월의 덧없음을 보지 못하고 계을 범하다가 죽음에 다달아서야 후회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버린 세월을 매번 후회해 본 들 소용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수비둘기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정진해 올바른 불자의 길을 걸으십시오.

정리=도불선 기자 (psdo@bu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조 동 규

(서울 경찰청 정보2실장)

불자들의 생활은 수행의 연속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집에 관세음 보살님을 모셔놓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몸을 정갈히 하고 108배를 한다. 108배를 하면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자기자신을 낮추는 하심(下心)을 하게 되니, 몸도 건강해 지고 마음은 겸손하게 되어 더할 나위 없이 큰 공부가 된다. 관세음보살의 대지대비를 실천하고자 살아있는 미물에 대하여도 의경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함부로 해치지 않으며, 도로에서 사고로 죽으면 짐승을 보거나 영구차를 보면 꼭 ‘왕생극락 하옵소서, 왕생극락 하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빈다.

사무실에는 석가모니부처님을 모셔 놓고 항상 마음속으로 호칭하며 업무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한 덕분에 지난 3월에는 많은 고통으로 인하여 약한 마음이 극에 달한 적이 있었으나

공부가 우선이 돼야겠다는 생각에 전체적 의미와 가르침을 시중에 나와있는 책들보다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한 해설서를 만들기로 마음을 먹고 작업을 시작했다.

우선 한자 한자 육권을 찾아 그 음과 뜻을 설명하고, 다시 불교사전을 찾아 용어설명을 덧붙였다. 가끔씩 한 문해석이 힘들어 다른 관련서적도 찾아가면서 나열식으로 전개해 나갔다. 그러다 보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았지만 다른 책이나 육권을 찾지 않고도 혼자서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독송용 금강경 해설서의 모습이 점점 잡혀갔고, <한글해설을 위한 알기 쉬운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됐다.

책 맨 앞장에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님, 지극 정성으로 키워주신 할머니님, 두분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면서 이 책

하심 키우는데 매일 108배가 최고 배움 나누려고 금강경 해설서 펴내

잘 참고 견디어 년 원동력이 되었다.

나는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스스로 배우고 익히며 실천해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서원한다. 그동안 수십종의 <금강경> 해설서와 한글경전 이 시중에 나와 있기에 그것들과 다른 나만의 <금강경> 해설서를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다.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금강경>은 거의 대부분이 기본적인 한문실력을 갖춘 사람이어야만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었다. 내 대학원 동기 보살들도 대부분 수업시간에 교수님의 강의를 다 알아듣고 이해하는 듯 했지만 막상 경전을 앞에 놓고 읽으면서 설명을 하려면 막막해하기 일쑤였다. 막연히 듣고 이해하는 것과 직접 자기 스스로가 해독해 가며 이해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보살들 뿐 아니라 요즘 젊은 불자들도 마찬가지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불교경전공부를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이 되는 <금강경>

을 바칩니다’라고 써 넣었는데 책이 나오던 날 밤에 어머니 같은 여인이 나타나 ‘교과제이’ 하면서 내게 말을 건네는 꿈을 꾸었다. 세상 불법의 큰 힘을 실감하며, 더욱 열심히 정진해야겠다는 마음이 굳어졌다.

1천부를 만들어 나누어 주다보니 사람들 사이에 책이 잘 되었다는 명성(?)이 있었는지 순식간에 동이나 얼마전 다시 1천부를 인쇄해 혹 필요할 분이 있으면 나눠드리려고 여시아문 책방에도 여러권 갖다 놓았다. 앞으로도 능력이 된다면 계속 출판해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배포시키고 싶다.

나는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을 좋아한다. 사십팔 쪽 부처님, 애어삼, 이행삼, 동사십의 가르침도 생활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깨쳐 금강의 경지에서 성불하기를 바라며 불자들이 좀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힘써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끝>



6근에 끌려 다니는 삶은 항상 할수 없어 계지켜 욕망 망상 단속하면 슬기 생겨요

간이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를 신속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불교가 지향하는 궁극의 도달점은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할 때 푸쉬키에 달한 ‘양식있는 사람’과도 상통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맑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늘 성찰하고 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범이 다름아닌 계(戒)입니다.

계는 산만한 마음을 방지하여 산란하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불교는 신(神)을 존중하여 의지하는 유신(有神)의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본래 청정한 자성을 깨달아 최고의 지혜를 증득하

떨시킬 수 있습니다.

정이란 경거(輕舉)와 망동(妄動)이 없는 평온 정착한 마음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의 잡념 물결이 고요히 잠들고 번뇌의 거친 파도가 침잠되어 버리면 잃어버린 자기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은 바른 사고의 기본입니다. 산란한 마음에서는 바른 사고와 몰두가 행해질 수 없습니다. 고요한 마음에서만 온갖 지혜가 샘나게 됩니다.

혜는 슬기로움입니다. 계를 지켜 고요함의 울타리를 두르고 그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으면 그로인해 참된 슬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부처님의 절대자유하고 평등무애한 세계로 나아가는 바른 방법은 이것을 배고나면 없습니다.

<대비파사론(大毘婆沙論)>에서는 삼장(三藏)과 삼학(三學)을 적절하게 비교하

경의 경전 속에 기록된 가르침은 우리들이 읽지만 하더라도 일생을 통해서도 모두 읽을 수가 없고, 또한 우리들이 어떠한 노력과 정진을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르침을 실천공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비무장애’라는 말은 부처님의 근본사상이신 대자대비의 참으로 장엄로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자대비의 이념을 우리들이 마음 속에 간직하고 직접 현실 사회에서 실천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자재하게, 모든 고난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근본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교의 가르침은 넓고 큰, 즉 광대무변한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대자대비심으로

전국 사찰 심야전력기기 시공전문업체 金剛機電. 심야전력기기란: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 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가구를 보일러보다 약 1/3~1/4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인조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전국 각지 여러사찰에 심야전력기기를 보급, 사후관리해온 저희 「금강기전」은 천년을 이어갈 사찰의 「난방공사」에 작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라니나현상」으로 길고 좁다는 울겨울 山寺의 겨울난방준비는 金剛機電으로... 심야전력기기를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업체입니다. 문의전화: 0343)468-7200(대)

氣 치료 능력 전수. 수년 혹은 수십년씩 기공 수련을 해야 가능했던 기 치료 능력, 기 응용 능력이 비법의 제발전과 그 과학화에 힘 입어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일로 바뀌었다. 레이키(REIKI: 靈氣)요법은 그 비법이다. 레이키 요법은 그 비법성으로 인해 전승이 끊겼던 티베트 밀교의 한 비법이 20세기 초엽에 일본의 수행자 우스이 미카오(1865-1926)씨에 의해 제발전된 후 미국으로 전승되어 미국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그 방법이 과학화, 표준화, 체계화, 간략화되면서 1980년대부터 영국 등의 의료전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세계화되고 있는 기 치료법, 기 응용법이다. 국민 대다수가 건강 불안과 생활불안을 안고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욱 간단하고 더욱 효과적인 건강법과 생활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것이 레이키 요법이다. 이 레이키 요법은 자격있는 레이키 마스터에게서 전수만 받으면 누구나 단시일내에 기 치료능력자, 기 응용능력자가 될 수 있는 비법 중의 비법이다. 레이키 요법의 전수 절차: 레이키요법의 전수는 모두 3단계로 이루어지며, 총소요일수는 5~10일 정도이다. 필요하면 이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도 있다. 레이키 요법의 전수 대상자(4세-83세): ① 스님을 비롯한 성직자와 의사들의 의료직 종사자 ② 남에게 좋을 일하며 살기를 원하는 분 ③ 새로운 직업(레이키 요법가)을 가지려는 분 ④ 만성병을 스스로 치료하고 다스리려는 분 ⑤ 만성병을 앓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 ⑥ 가정과 사회를 평화롭고 운세 좋게 하려는 분 ⑦ 자기와 우주, 이 세상과 저 세상, 명제계와 암재계가 한 덩어리임을 깨달으려는 분. 레이키 요법의 응용: ① 음식물, 물, 약, 씨앗, 사료 등에 기를 넣는데 쓰인다. ② 감정, 마음, 카르마(업),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행동장애 등을 개선하고 영성을 개발하는 데 쓰인다. ③ 미용효과와 단식효과를 올리는 데 쓰인다. ④ 원격치료, 동식물의 치료, 환경을 정화하는 데 쓰인다. ⑤ 소망성취, 미래에 일어날 일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데 쓰인다. 기타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 레이키마스터 번역 저술가 박희준 (朴熙俊) 서울시 중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선 B/D 한국레이키요법 연구학회 (02)720-5682, 725-2311

난치병치료안내. 수백년 비전된 한방의술로 난치병을 치료한 고봉거사는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우리 농산물로 만든 환약(약액)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 천식, 신경성위장병, 신부전증, 관절염, 백혈병 초기 등 탁월하게 치료됨. 당뇨병: 동등한 사람은 3개월만 복용하면 20kg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난치병 지리산 요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익수영진고: 경옥고보다 10배이상 우수한 약효력, 9일만 밤낮으로 불로 다려서 만듦. 왕기치신환: 한국에서 유일하게 1200년전 당나라 선도의술의 의성 주진형의 놀라운 비법 알약. 100% 우리 농산물로 가공. 늦은 가을 전통죽염, 최고급 죽염간장 출시 예정. 문의전화: (011) 808-8880 (왕진,출장) (053) 655-3027

순수한 경만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기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 최초로 공개. ①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들어그림, 佛자그림 (수묵화 차단) 특별보사. 전문 중 일정한 기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한국불교 선묵가협회 초대 작가로 추천함. 한국 수묵화 방자 출연협회 인증 100% 효과. 생명의 전화: (주) (02)242-0331, 242-0255 (야) 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정종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문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